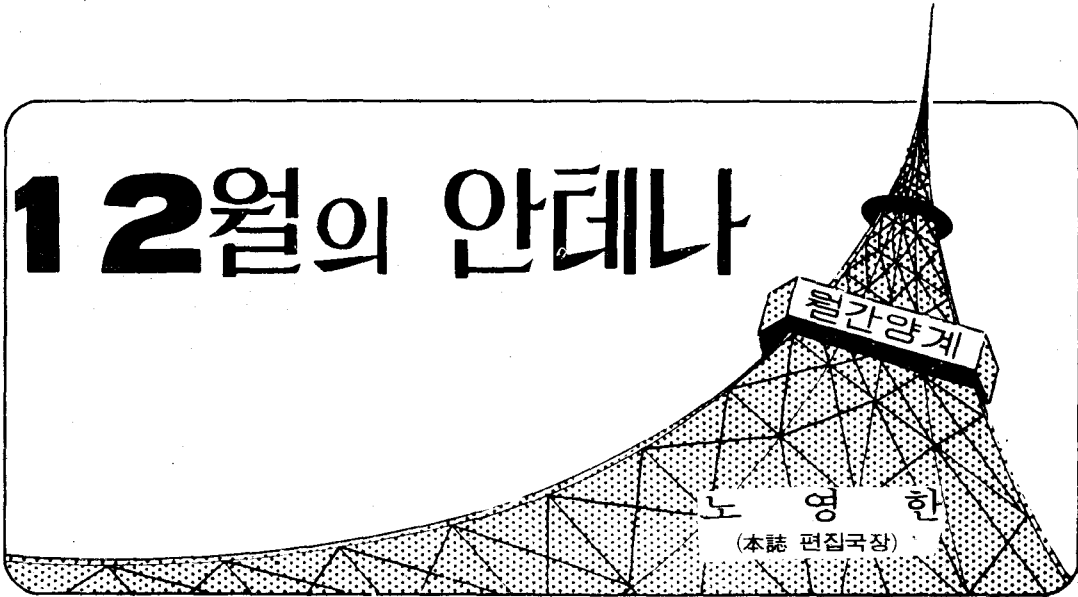


12월의 안테나



도입옥수수
200 \$ 선을 돌파

사람의 의식구조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놀라기도 하고 무감각 하기도 한다.

얼마전 장충동에서 큰 부자가 칼에 여러 곳을 찔려 숨졌을때 그의 재산이 50억이라고 처음에 발표 되었다.

그래도 독자들이 무감각 해서인지 석간에서는 100억이 되고 이것이 입으로 전해질 때는 어느덧 1,000억으로 크게 불어나 있었다.

만일 이 사건이 김포공항의 KAL 점보기 화재 사건과 같은날 보도 되었더라면 아마도 세인의 기억에 남지도 않았을 것이다.

요즈음 사료가격 인상이 심심치 않게 화제가 되고있다.

옥수수 가격이 15%오르고 소맥피가 58%오르고 탈지강이 45%등, 올라도 크게 오르므로써 이제 10%이내의 인상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무감각하게 되었다.

이제 사료값에 관련한 양계업자는 거의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가 복욕탕에서 온탕에 있다가 냉탕에 들어 갈때는 차게 느껴지지만 몇번 온탕 냉탕을 다니다 보면 피부의 신경이 마비되어 찬지 더운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것과 같은 원리인것 같다.

최근 미국 시카고 곡물 선물시장에서 81년도 2월분 옥수수 가격이 kg당 200 \$을 넘었다고 한다. (인천도착 기준)

현재 우리가 1월말에서 2월 초까지 사용분은 기왕에 구입하였거니와 2월분 옥수수가

200\$을 넘었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사료 값에 무디어 졌다고는 하여도 쇼킹한 뉴스가 아닐수 없다. 사료값은 얼마나 오를까?

여기에서 옛 선인들의 대화가 생각나 소개한다. 필립 대왕은 아들 알렉산더를 낳아 훌륭한 왕을 만들고 싶어 당시 세계 제일의 석학인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로 모신적이 있는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다.

소년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화는 계속 된다.

「왕자께서는 이 다음에 장성하여 왕위에 오르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 우선 헬라를 통일해야지요 -

「헬라를 통일한 후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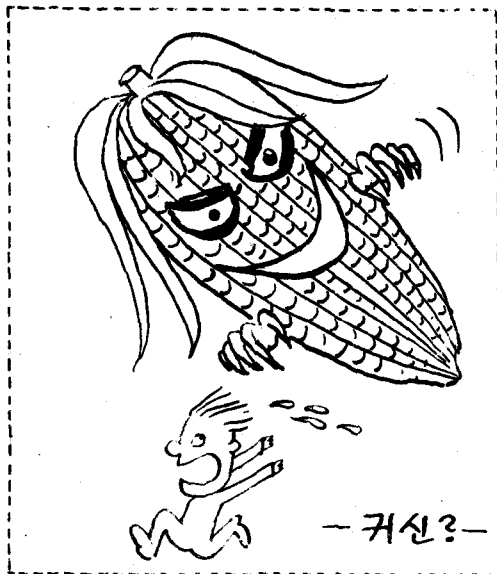
- 다음은 소아시아 지방을 통일 해야지요

「다음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 그 후에는 애굽을 또 페르시아를 통일 해야지요 -

「그 후에는 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 다음은 인도를 통일해야지요 -



「그 후에는 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 그때쯤 되면 아마 내 나이도 상당히 많 아질 것이고 나는 피곤하여서 좀 쉬고 싶어 질 것입니다 -

「쉬신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 아마도 그후에는 나도 죽게 되지 않겠 습니까 -

「결국 끝은 죽는것이군요」

-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그 넓은 땅을 정복하고 나이가 많 아져 죽는 것이나 지금 죽는 것이나 죽는것 은 마찬가지군요」

결국 옥수수 값도 끝없이 오르다가 피곤하 면 값이 오르는 것을 멈출것이며, 값이 오르 면 수요가 감퇴하여 그때는 축산업자는 죽게 될 것이고 그때에야 옥수수 값도 떨어지지 않 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채란업자나 부로일러 업자중에 양계업계의 알렉산더 대왕이 되고저 무한정 규모를 키워 나가다 보면 그는 피로하여져서 쉬고 싶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죽음을 눈앞에 보게 되는 때가 될 것이다. 규모의 확장은 자기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기위해 이루어 져야 하며 그 목적은 반드시 선행해야 하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도와주기 위 하여 규모를 확장하는 일은 없을줄로 생각된다.

끝없이 오르는 사료가격, 너무 빨리 오르는 사료가격, 앞으로도 계속 오를 사료가격,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알맞는 규모로 자제하여 고비를 넘겨주기를 바라며 오르는 사료가격에 경제적인 배합사료를 만들어 대처해 나가는 길을 계속 찾아내야 될 것이다.

끝없이 규모의 확장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쉬고 싶게 되다가 영원히 쉬게되는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세법의 대폭개정

재무부는 소득세법 조세감면 규제법을 비롯한 10여개의 세법 개정안을 입법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새시대 새질서에 맞는 세정을 위하여 기업 체질 강화와 경기부양을 위해 이루어지는 이번 세법 개정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수 없는 것은 현재 축산업자들이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 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며, 감면 기간이 81년도 사업분으로 종결됨으로써 이의 연장을 관계 당국에 건의 하고저 하는 시점에서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무부에서 입법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세법의 개정내용도 여러가지중에 중요산업에 대한 감면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기로 한점이다.

축산업이 중요산업으로 지정되고 안됨에 따라서는 81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감면혜택이 1년 앞당겨 끝나 질 수도 있고 더욱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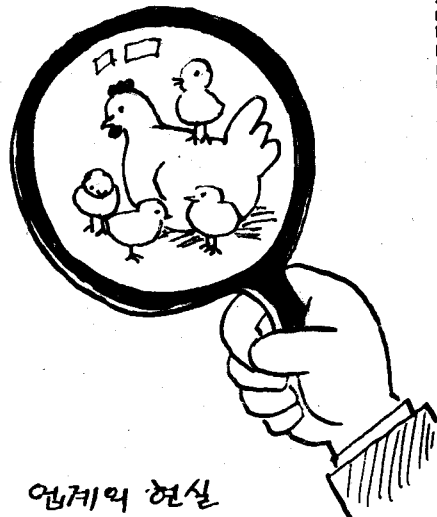
이번에 개정될 중요 세법들을 보면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 규제법 부가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법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인삼 및 인삼제조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중 우리와 관련이 큰 법률의 개정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는 지상배당과세 완화(紙上), 배당세액 공제확대, 비업무용 부동산 자진처분시의 양도소득세 장기 분할납부등이며, 법인세는 법인세율의 인하 조정등이고 부가가치세법도 행정집행상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조세감면 규제법도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오는 81년까지 시효가 끝나도록 되어 있어 내년에 가서 중요산업에 대한 감면 범위를 대폭 감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키로 하였다.

이번 재무부가 구상하는 세제의 전면적인 개편방향은 80년대의 세계운용을 성장전략으로서의 경제개발 지원세제와 국민 복지를 지원하는 공평 재정세제를 적절히 조화시켜 세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조세감면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실효세율을 높이며 납세자 편의와 납세자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세제로 점차 개편해 나가겠다고 재무장관이 밝힌바 있다.



업체의 현실
충분히 반영되길.....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 필요성과 이에 따른 축산업자의 자세등에 대하여는 그간 수차 본지에 소개되었기에 생략하거니와, 아무튼 세계의 기본 운용 방향이 개혁되는 시대에 우리 축산업의 현 위치를 조세 정책 담당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여 우리의 축산업이 충실히 내실을 기하며 발전하여 80년대 복지국민의 식생활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또 이 기회에 전 축산인에게 바라는 것은 앞으로 어렵더라도 법인체화 또는 철저한 기장으로 서서히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새시대 새세정의 일환으로 법인체에 한하여 80년도 사업분부터 법인세 부과 납부제도에서 신고 납부제도로 바뀌어짐으로서 법인체들은 세무간섭을 배제케 하고 지금까지의 추계과세(인정과세)를 면하도록 되었으며, 법인세 신고에 객관성을 보장키 위하여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 대부분의 법인체는 (세무사에 작성의뢰 한다) 첨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앞으로 법인 축산업체의 출현 증가에 따라 축협중앙회나 협회에서 이에대한 서비스등을 하는 방안등이 모색 되어져야 될 것이다.

일어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12월 1일 정부는 정부비 12.2% 보리쌀 27.5% 밀가루 20.8% 각각 인상 하였다.

이들은 직접 우리의 주식이 되는 식품으로

내뺌으로 일반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고 가격 탄성치가 가장 낮아 다른 부분의 지출을 절약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다.

금년에 특히 가장 많은 수의 소비계층인 일반 봉급자들의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소득 탄성치가 높은 축산물의 소비 증가가 위축된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다.

지난 11월 초의 사료가격 인상으로 양계산물의 경우 약 15% 정도의 생산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체 가격이 10% 인상될 경우 닭고기는 약 3%(2.94%) 계란은 19%(19.17%)의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15%의 가격이 인상되면 닭고기는 4.4%가 계란은 28.8%가 소비 감퇴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 수치는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축산물이나 수산물 등의 가격도 함께 오를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닭고기 보다도 계란 쪽의 소비 위축이 더욱 심각할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더우기 계란의 수요기안 3월을 앞두고 1월 또는 2월에 다시 한번 사료 가격이 오를 것이 예상되어 더욱 소비 위축을 예견 하기는 어렵지 않게 되었다.

어느 대규모 채란 양계와 양돈을 하시는 분이 과거의 기록을 보니 계란은 겨우 생산비에 도달 했는가 하면 소비에 저항을 받아 다시 값이 하락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란의 가격 탄성치가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일어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 넘어질까 두렵다」는 성구를 생각나게 한다.

고아원에 가보면 고아들의 가장 큰 불행은 그들에게 부모가 없다는 것임을 실감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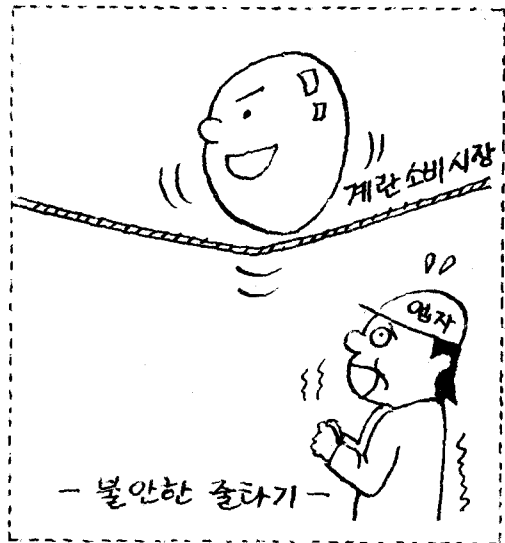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원에 가 있는 것이고

마치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낮에는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잊어 버리고 즐겁게 놀다가도 밤만 되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밤 사이에 도망가면 우리를 누가 먹여 줄 것인가? 밤에 변소에 가고 싶을 때 누가 캄캄한 밤에 무서운 변소까지 데려다 줄 것인가? 모든 것이 생각하면 외롭고 두렵기만 한 것 들이다.

이들은 성장 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도와 가며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됨으로써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양계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두려움, 사료 가격 인상에 대한 두려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가금 질병 피해에 대한 두려움, 인정 파세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두려움이 경기가 좋을 때는 잊어 버리다가도 어두운 밤이 되면 더욱 큰 두려움으로 엄습해 온다.

정부나 협회 또는 축진은 양계 업자의 부모 노릇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부모 노릇으로 그칠 것인가?

양계업자는 버려진 고아 인가?

스스로 산업이 성장하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서로 도와 가며 힘을 합하여 나감으로써 두려움은 서서히 물리칠 수가 있을 것이다.

주요 식품의 소득 및 가격탄성치

	농 작 물					축 산 물				
	쌀	보 리	밀	배 추	사 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 란	우 유
소득탄성치	0.148	-0.061	0.482	0.467	0.669	1.201	1.077	0.394	1.027	3.433
가격탄성치	-0.184	-0.301	-0.330	-0.605	-0.347	-0.879	-1.474	-0.294	-1.917	-0.502

정확하고 신속한

시세엽서

1년분 정기구독 5,000원

발행처 : 대한양계협회

지도조사부 (22-3571~2)